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방카슈랑스 실적 증가와 경쟁 심화

□ 상대적인 금리 매력도를 가진 저축성보험의 실적 증가가 저축성보험 비중이 큰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실적을 크게 증가시킴.

-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FY2010년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방카슈랑스 실적이 전년대비 73.8% 증가한 5조 173억원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전체 초회보험료 실적의 66.5%, 보험설계사 실적의 2.8배에 해당함.
- 방카슈랑스 실적 증가는 방카슈랑스 상품 중 상당수가 저축성보험인데다 시장금리가 낮아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성보험에 대한 가입유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임.
-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은행 등이 판매한 2년 특약 고금리 금융상품의 만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도래하였으며 투자대안으로 방카슈랑스 저축성보험이 부각됨.

□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방카슈랑스 영업비중 확대 속에 향후 농협 생명보험의 합류가 예정되어 있어 방카슈랑스 영업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.

- 보험설계사 위주의 영업을 유지해 온 생명보험 대형 3사의 초회보험료 기준 방카슈랑스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.
- 2012년 3월 농협의 생명보험 분사가 예정되어 있어 방카슈랑스 시장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.
 - 농협은 5년간 방카슈랑스 규제*를 적용받지 않아 전국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방카슈랑스 영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.
 - * 방카슈랑스 규제란 한 은행 점포에서 특정 보험회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%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.

□ 방카슈랑스 채널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설계사 채널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.

(방카슈랑스 인기 급상승 등, 연합뉴스 등, 5/11)